

#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강혜승\*, 김윤영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Hye-Seung Kang\*, Yoon-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Gum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D 시와 K 도에 소재한 간호대학 3곳에 재학 중인 3, 4학년의 간호대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은 평균 3.73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3.73점, 셀프리더십은 평균 3.73점으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 $r=.520, p<.001$ )과 비판적 사고성향( $r=.691, p<.001$ )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셀프리더십에 대해 자기효능감( $\beta=.277, p<.008$ ), 비판적 사고성향( $\beta=.274, p=.006$ ), 학년( $\beta=.273, p<.001$ ), 종교( $\beta=.163, p=.023$ ), 전공지원동기( $\beta=-.155, p=.033$ )는 총 45.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예측 요인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he research subjects were 114 nursing students in D city and K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9 to November 27, 2015, and analyzed by a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IBM SPSS/Win 20.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self-efficacy was 3.7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as 3.73, and self-leadership was 3.73. The self-leadership has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fficacy( $\beta=.277, p<.008$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eta=.274, p=.006$ ), grade( $\beta=.273, p<.001$ ), religion( $\beta=.163, p=.023$ ), motivation of nursing( $\beta=-.155, p=.033$ ) explained 45.6% of total variance of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self-leadership were self-efficacy, followed b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the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Critical thinking, leadership, Nursing, Self-efficacy, Students

## 1. 서론

간호교육은 간호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실무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는 교육성과 중심으로 변화하고

### 1.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Hye-Seung Kang(Gumi Univ.)

Tel: +82-54-440-1312 email: hskang21@gumi.ac.kr

Received February 8, 2017

Revised (1st April 3, 2017, 2nd May 1, 2017)

Accepted May 12, 2017

Published May 31, 2017

있다[1].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최근의 의료현장은 대상자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상승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술이 요구된다[2].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간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주도성과 독립성을 지닌 전문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3]. 이에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즉각적인 대처능력과 간호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기회가 많으므로 간호사 개개인이 셀프리더십을 지녀야 한다[4]. 따라서 간호사에게 셀프리더십이 기본 자질로 필요하듯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은 전문적인 자질 함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5].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이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성과를 나타내게 하여 학과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스스로 설계한 목표에 대한 자율성과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고 성장하게 한다[2].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면 간호대학생 스스로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는 자율성, 주도성 및 열정을 동반하게 된다[3]. 이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 효능감은 셀프리더십을 더욱 증진한다[4]. 그러므로 빠르게 급변하는 임상현장을 고려할 때 셀프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다[2].

간호대학생에게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적응과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준다[2].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간호 문제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1].

또한,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인 사고성향은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과 분석하고 종합 및 추론하는 능력을 증진한다[6].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수행에 필요한 핵심적 요소이다[7]. 특히 보건의료 환경의 다양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요구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을 가진 학생일수록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식과 정보를 찾아 학습자 스스로 주도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8]. 이러한 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목표를 설정한 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다[9].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Lee 등[2]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이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Park[8]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 능력이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Choi와 Jung[1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간호교육의 목표는 졸업 후 간호대학생이 임상현장에서 핵심 역량을 갖추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는 데 있다[11]. 이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기본 자질이라 볼 수 있다[12].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셀프리더십에 대한 설명력 정도를 파악한 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D 시와 K 도에 소재한 간호대학 3곳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간호학과 3, 4학년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간호대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전에 대상자에게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장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13] 프로그램에 의해 효과 크기는 회귀분석의 중간 수준인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독립변수 7개로 하여 최소 표본의 크기를 산출한 결과 105명이 결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20명의 대상자를 임의 표집 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 등[14]이 개발한 36문항의 척도를 Hong[15]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역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3점에서 최고 1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Hong[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 2.3.2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16]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개의 하위요인으로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지적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체계성’ 3문항, ‘객관성’ 3문항의 총 2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역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Yoon[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 2.3.3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Hough와 Neck[17]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RSLQ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Kim[18]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행동 중심 전략의 하위요인으로 ‘자기 목표 설정’ 5문항, ‘자기관찰’ 4문항, ‘자기 처벌’ 4문항, ‘자기 보상’ 3문항, ‘자기 단서’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고 중심 전략의 하위요인으로 ‘성공적인 수행하기’ 5문항, ‘자연적 보상’ 5문항, ‘신념과 가정 분석’ 4문항, ‘자기 대화’ 3문항으로 구성된 총 35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한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35점에서 최고 1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Kim[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 2.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었다. D 시와 K 도에 소재한 간호대학 3곳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과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설명한 후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직접 기록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였다. 또한, 설문지 배부 및 수거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회수율, 불충분한 응답수를 고려하여 총 120부를 배부하고, 이중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6부를 제외한 11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Scheffé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및 셀프리더십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 17.5%, 여자가 82.5%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23세 이하가 88.6%, 24세 이상이 11.4%로 나타났으며, 3학년 41.2%, 4학년 58.8%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는 종교 없음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독교가 21.9%, 천주교 18.4%, 불교 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적성을 고려한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률 고려가 26.3%, 타인의 권유가 21.1%,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어가 9.6%, 기타가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경우가 57.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보통이다 경우가 34.2%, 불만족인 경우가 8.8%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4)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20(17.5)
	Female	94(82.5)
Age(year)	≤23	101(88.6)
	>24	13(11.4)
Grade	3	64(56.1)
	4	50(43.9)
Religion	Christian	25(21.9)
	Catholic	21(18.4)
	Buddhist	17(14.9)
	None	51(44.7)

Motivation of nursing	Grade in high school	11(9.6)
	Fitness	38(33.3)
	Recommendation	24(21.1)
	High employment	30(26.3)
	Others	11(9.6)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65(57.0)
	Moderate	39(34.2)
	Dissatisfaction	10(8.8)

#### 3.2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의 정도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74±0.53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정도였고, 하위요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3.72±0.58점, 사회적 효능감이 3.73±0.66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73±0.44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정도였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73±0.46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정도였으며, 하위요인의 행동중심 전략이 3.69±0.46점, 사고중심 전략이 3.78±0.55점으로 약간 높은 정도였다(Table 2).

Table 2. Levels of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N=114)

Variables	M±SD		Min-Max
	General	Social	
Self-efficacy	3.72±0.58	3.73±0.66	1-5
	3.74±0.53	3.73±0.44	1-5
	3.73±0.46	3.69±0.46	1-5
Self leadership	3.78±0.55	3.73±0.46	1-5
	3.73±0.46	3.73±0.46	1-5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연령(t=2.126, p=.036), 학년(t=5.658, p<.001), 종교(F=5.096, p=.002), 전공 지원동기(F=4.096, p=.004), 전공 만족도(F=11.55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더 높게 나타났다.

Scheffé 사후 검정 결과 전공 지원 동기에서는 ‘적성 고려’가 ‘타인 권유’보다 셀프리더십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셀프리더십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of the Self-leadership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4)

Variables	Categories	M±SD	t/F (p)	Scheffé
Gender	Male	3.83±0.40	.981	
	Female	3.71±0.48	(.329)	
Age (year)	≤24	3.70±0.46	2.126	
	>25	3.99±0.40	(.036)	
Grade	3	3.58±0.43	4.380	
	4	3.93±0.42	(<.001)	
Religion	Christian <sup>a</sup>	3.92±0.61	5.096 (.002)	a>d
	Catholic <sup>b</sup>	3.84±0.39		
	Buddhist <sup>c</sup>	3.85±0.48		
	None <sup>d</sup>	3.56±0.34		
Motivation of nursing	Grade in high school <sup>a</sup>	3.78±0.45	4.096 (.004)	b>c
	Fitness <sup>b</sup>	3.89±0.45		
	Recommendation <sup>c</sup>	3.49±0.44		
	High employment <sup>d</sup>	3.64±0.34		
	Others <sup>e</sup>	3.93±0.63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sup>a</sup>	3.88±0.45	11.551 (<.001)	a>b
	Moderate <sup>b</sup>	3.61±0.37		a>c
	Dissatisfaction <sup>c</sup>	3.26±0.45		

### 3.4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 $r=.520, p<.001$ )과 비판적 사고성향( $r=.563, p<.0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 $r=.691, p<.001$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고,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N=114)

Variables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r(p)	r(p)
Critical thinking	.563(<.001)	
Self-efficacy	.520(<.001)	.691(<.001)

### 3.5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학년, 종교, 전공 지원동기, 전공 만족도를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으로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의 공차한계 값이 0.474~0.976의 범위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025~2.110의 범위로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463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801~2.136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만족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F=19.939, p<.001$ ).

다중회귀분석 결과 셀프리더십에 대해 자기효능감( $\beta=.277, p<.008$ ), 비판적 사고성향( $\beta=.274, p=.006$ ), 학년( $\beta=.273, p<.001$ ), 종교( $\beta=.163, p=.023$ ), 전공지원동기( $\beta=-.155, p=.033$ )는 총 45.6%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N=114)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1.380	.287		4.805	<.001
Self-efficacy	.245	.807	.277	2.796	.008
Critical thinking	.287	.106	.274	2.716	.006
Grade	.254	.068	.273	3.744	<.001
Religion <sup>d1*</sup>	.181	.078	.163	2.314	.023
Motivation of nursing <sup>d3*</sup>	-.176	.081	-.155	-2.161	.033
Adj. R <sup>2</sup> =.456 F=19.939					p<.001

\* dummy variables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정도를 살펴보고, 변수 간에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73점으로 중간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g의 연구[19]에서 3.23점, Kim[20]의 연구에서 3.33점, Han[21]의 연구에서 3.81

점을 나타내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중간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ang[22]의 연구에서 2.58점, Lee[23]의 연구에서 2.10점으로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이유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다양하고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지며 이론과 임상실습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10]. 간호대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간호 문제와 대상자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과 대상자들과의 치료적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졸업 후에도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인 간호중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일수록 셀프리더십을 통하여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70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한 Kwon[12]의 연구에서 3.37점, Lee 등[24]의 연구에서 3.4점, Park 등[1]의 연구에서 3.44점, Kim 등[7]의 연구에서 3.6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교육성과 기반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여 비판적 사고성향이 많이 함양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성향을 의미하며[16]. 간호교육성과의 중요지표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핵심요소로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3]. 비판적 사고성향은 창의적 사고 및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의 발견, 이해 및 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25]. 이에 간호대학생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주도적 학습이 가능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셀프리더십을 함양하게 된다[5].

셀프리더십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71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8]의 연구에서 3.64점, Lee와 Hong[26]의 연구에서 3.44점, Yang과 Moon[27]의 연구에서 3.72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 중 문제 중심 학습, 팀 중심 학습, 표준화 환자, 시연, 시뮬레이션 등을 적용한 다양한 학습을 통해 셀프리더십은 함양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동 및 사고 전략으로 스스로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이다[17].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반영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된다[28]. 셀프리더십을 통해 길러진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잘하여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해 셀프리더십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학년, 연령, 종교,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기독교 종교를 가진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간호학을 지원한 경우,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11]의 연구에서는 학년, 연령, 경제적 상태, 휴학 경험 등에 따라 셀프리더십에 차이가 있으며, 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3]의 연구에서 학년,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 만족도, 학업성적, 성격성향, 대인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4학년이 3학년보다 셀프리더십이 높는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3, 11]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셀프리더십이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발전될 수 있으므로[27] 대학생활을 통해 개인이 경험하는 교육활동과 학습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것은[11] 자신을 리더하고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지적 및 행동적 전략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교는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힘들지만, 기독교 종교를 가진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난 것은 종교 생활을 통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Park[3]과

Lee 등[5]의 연구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간호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타인의 권유 때문에 지원한 경우보다 셀프리더십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위의 기대치에 맞추어 지원을 하는 경우 졸업 후 전공과 일치된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힘들다. 이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개인의 긍정적 사고성향과 대인관계의 원만함이 전공 만족도를 높여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간호대학생의 자아발전 및 자기계발을 위한 셀프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학년, 전공 만족도 등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및 적용하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과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성향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본 Choi 등[1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8]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과생활을 통한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지속적인 리더십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자기성찰을 하면서 재도전하고 건설적인 사고를 하는 셀프리더십을 통해 간호전문직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간호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은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학년, 종교, 전공 지원동기로 총 45.6%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임파워먼트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Kang 등[30]의 연구결과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Park[8]의 연구결과,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만족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Lee 등[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등[1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셀프리더십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간호대학생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고, 학과 적응을 어렵게 한다. 또한, 졸업 후 간호사로 취업해서도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셀프리더십을 발휘하여 간호 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2].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29]. 즉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8]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Park 등[1]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실무의 복잡한 간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의 발견, 이해 및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0].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함으로써 스스로 문제 해결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어 셀프리더십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인식하고 다양한 의료팀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리더십 향상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강화하면 양질의 간호 수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학년, 종교, 전공 지원동기가 셀프리더십의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학년이 높을수록, 기독교 종교를 가진 경우, 대학생활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타인의 권유 때문에 간호학과에 지원한 경우 전공에 대한 불만족과 자기 주도성이 부족하여 셀프리더십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과생활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간호 전문직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간호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편의로 표본을 선정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셀프리더십에 대해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성향 등의 변수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수는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의 설명력은 45.6%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강화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비판적 사고성향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1] J. W. Park, C. J. Kim, Y. S. Kim, M. S. Yoo, H. R.

Yoo, S. M. Chae,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leadership on crit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 24, no. 3, pp. 223-231, 2012.  
DOI: <https://doi.org/10.3946/kjme.2012.24.3.223>

[2] Y. S. Lee, S. H. Park,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229-240,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29>

[3] H. 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27-236,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27>

[4] Y. S. Kang, Y. J. Choi, D. L. Park, I. J. Kim,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2, pp. 143-151, 2010.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2.143>

[5] J. Y. Lee, M. H. Cho, "Correlations Betwee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Process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vol. 13, no. 3, pp. 241-253, 2012.

[6] S. A. Ya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4, pp. 389-398, 2012.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4.389>

[7] I. S. Kim, Y. K. Jang, S. H. Park, S. H. S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39-347,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337>

[8] H. S. Park, J. Y. Ha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vol. 26, no. 3, pp. 695-706, 2015.  
DOI: <https://doi.org/10.7465/jkdi.2015.26.3.695>

[9] G. A. Seomun, "The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Outcome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1, no. 1, pp. 45-48, 2005.

[10] Y. H. Choi, C. S. Jung,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Impower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604-4613, 2015.  
DOI: <http://doi.org/10.5762/KAIS.2015.16.7.4604>

[11] M. O. Lee, M. Y. Lee, S. Y. Kim, "A Study o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Their Perception of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 417-425,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3.417>

[12] M. S. Kwo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89-396,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387>



- [13]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and Lang A-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 vol. 41, no. 4, pp. 1149-1160, 2009. DOI: <https://doi.org/10.3758/BRM.41.4.1149>
- [14] Sherer, M., Maddux, J. E., Merac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 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pp. 663-671. 1982. DOI: <https://doi.org/10.2466/pr0.1982.51.2.663>
- [15] H. Y. Hong, "The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5.
- [16]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4.
- [17] Houghton, J. D, Neck, C. P,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17, no. 7, pp. 672-691. 2002. DOI: <https://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 [18] W. G. Kim, "Effects of Korean Enneagram Program on the Ego-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3.
- [19] S. K. Chung, "Effects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2, pp. 160-169, 2014.
- [20] D. J. Kim,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3.
- [21] S. J. Ha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6, no. 1, pp. 132-146, 2000.
- [22] K. M. Chang,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iency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vol. 6, no. 10, pp. 185-196, 2005.
- [23] J. A. Lee, "Medicating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s in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to major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5, pp. 2329-2344,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5.201210.2329>
- [24] J. Y. Lee, Y. M. Lee, S. Y. Pak, M. J. Lee, Y. H. Jung,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4, pp. 606-616,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4.606>
- [25] K. H. Kim, G. D.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of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no. 2, pp. 229-236, 2007.
- [26] J. C. Lee, A. J. Hong,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c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abil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6, no. 1, pp. 69-92, 2013.
- [27]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2, pp. 216-225, 2011.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2.216>
- [28] Y. S. Kang, Y. J. Choi, D. L. Park, I. J. Kim, "A study on nue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2, pp. 143-151, 2010.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2.143>
- [29] S. H. Kim, N. H. Kim, "The effect of rehabilitation hospital nurse; professional autonomy and self efficacy on professional self concep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165-174, 2016. DOI: <http://doi.org/10.5762/KAIS.2016.17.1.165>
- [30] J. Yoon,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 Focusing on a school applying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cademic society Administration*, vol. 14, no. 2, pp. 159-166, 2008.

**강혜승(Hye-Seung Kang)****[정회원]**

- 2010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임상보건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lt;관심분야&gt;

노인간호, 간호교육, 정신간호

**김윤영(Yoon-Young Kim)****[정회원]**

- 2010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임상보건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lt;관심분야&gt;

정신간호, 간호교육, 노인간호